**히0214 Note**

**◆**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p328>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힘도 없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승리의 유익을 즐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마귀가 패배하였지만, 아직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타도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에베소서는 만약 우리가 주님의 힘 속에서 강하며, 그분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그 힘을 대적할 힘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동일한 악한 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으로 우리는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승리만을 바라보고 악의 힘에 대한 사도의 경고를 간과한다.

또 어떤 이들은 악의 무서운 적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두신 승리를 간과한다.

이 긴장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긴장의 일부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서 전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절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새 시대가 왔음으로 우리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지만 아직 옛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 긴장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카타르게오(katargeo)'라는 동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 단어는 영어성경에서 자주 '파멸시키다(destroy)'로 번역되지만, 실은 그렇게까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도리어 그 단어는 '무력하게 혹은 무능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이며, 비옥하지 못한

 땅과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나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것들은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메말라버렸다. 마귀는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며, 우리의 타락한 품성은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고,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타도된 것이다..